21 세기 미래 비전의 초석을

대한건설협회 회장 **장 영 수**

전국의 건설인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200 만 건설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이 점철된 시련과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건설업계도 업체 수가 무려 1만 2,000 여 개사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수주 물량 부족과 과당 경쟁, 수익성 악화 등 3중고가 겹쳐진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건설업계는 동북 아시아 항공 교통의 중심이 될 인천국제공항 1단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개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 축구 전용 구장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으로 평가받는 제주 경기장 등 10 개의 월드컵 경기장을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공시킴으로써 건설 한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드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353km 에 달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을 착공 11 년 만에 완전 개통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21 세기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가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건설업계의 조속한 구조조정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시행한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등으로 신규 업체의 증가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하나 현재의 과다한 업체 수로는 건전한 경쟁 구조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실 · 부적격 업체를 조속히 정비하고 업계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룰을 확립하여 경쟁력 없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순리적 시장 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제한된 건설 물량을 놓고 업체간 과당 경쟁을 벌이다 보면 무모한 덤핑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업계 전체의 공멸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최저가낙찰제는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가 낙찰이 계속되어 그동안 업계에서 어렵게 정착시켜 온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여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무모한 저가 덤핑 수주를 자제하여 수익성에 기초한 건전한 경영 풍토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 수요의 다양화 및 고도화에 대응하여 이제 건설업계도 수주 및 단순 시공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업체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전문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해외건설은 국가 신인도 하락 및 대형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와 해외 시장 불안 요소로 1998 년 대비 58% 수준에 그쳐,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건설산업에도 지식 경영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등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전 산업에 걸쳐 생산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도 경쟁력을 잃고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인 여러분!

우리 건설인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힘을 합쳐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 건설산업을 일구어낸 자랑스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건설인들이 다시 힘을 모아 건설산업의 재도약과 국가 경제 발전에 앞장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설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壬午年 元旦